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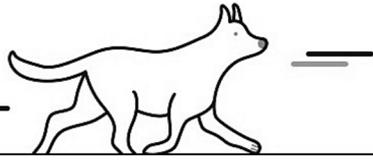
무술년 더 반가운 개띠 작가들



구효서



김진명



한강



김연수

구효서, 김진명, 한강, 김연수, 김선우, 정현아...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바로 개띠 작가들이라는 점이다. 한국 문학을 대표하는 중견 작가, 차세대 한국 문학을 이끌 어갈 작가로 주목을 받는 이들이다.

황금 개띠 해를 맞아 문학계에 빛나는 활약을 보여줄 작가들에 대한 인터넷 기획전이 열려 눈길을 끈다. 인터파크도서는 1958년생부터, 1970년생, 1982년생까지 올해 기대되는 개띠 작가들을 소개하고, 그들의 작품을 한데 모은 기획전(http://bit.ly/2De4Git)을 진행하고 있다.

오는 2월 28일까지 열리는 '2018 개띠작가 기획전'에서는 1958년생부터 1970년생, 1982년생까지의 개띠 작가 작품과 특별 메시지 등을 소개한다. 또한 새해 소망 이벤트 응모 시 추첨을 통해 작가 친필 사진 도서도 증정한다.

◇1958년생 구효서, 김진명=올해로 만 60세가 되는 1958년생 개띠 작가는 구효서, 김진명 등이다. 대표적인 중견 작가

인터파크도서 '개띠 작가' 온라인 기획전

구효서·김진명·한강 등 작품·메시지 소개

로 꼽히는 이들은 작품을 통해 뚜렷한 존재감을 보이고 있다.

소설가 구효서는 1987년 중앙일보 신춘문예에 단편 '마디'가 당선돼 본격적으로 작품활동을 시작했다. 토속적 정서에서 해독 불가능한 관념의 세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제의 작품을 만들었다.

또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로 유명한 김진명 작가도 같은 해에 출생했다. 김진명 작가는 우리나라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뚜렷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팩트에 입각한 설명을 제시해 두터운 마니아층을 형성하고 있다. 최근 북핵 위기를 소재로 두 권 짜리 장편 '미중전쟁'을 펴내기도 했다.

◇1970년생 한강, 김연수, 김선우, 최혁근=1970년생으로 올해 만 48세가 되는 개띠 작가에는 소설가 한강이 있다. '채식주의자'로 한국인 최초 맨부커상 인터내셔널

부분을 수상한 한강은 한국 문학의 세계화에 새 이정표를 세우기도 했다.

'세계의 끝 여자친구', '파도가 바다의 일이라면' 등 수많은 장편소설과 산문집을 발표한 소설가 김연수도 1970년생이다. 김연수는 1994년 장편소설 '가면을 가리키며 걷기'로 제 3회 작가세계문학상을 수상하며 본격적인 작품활동을 시작했다. 무심한 듯 위로를 건네는 이야기가 특징이다.

또 김선우 시인도 빼놓을 수 없다. 1996년 '창작과 비평' 겨울호에 '대관령 옛길' 등 10편의 시를 발표하며 등단했으며 현대문학상과 천상병 시상 등을 수상했다. 이 밖에 2003년 '계간 미스터리'를 통해 데뷔, 한국 미스터리작가모임에서 활발히 활동 중인 최혁근 작가도 1970년에 출생한 개띠다. 2013년 장편 추리소설 '파라일

로 한국추리문학대상을 받은 추리문학계의 기대주다.

◇1982년생 오은, 정현도, 정현아=올해 만 36세가 되는 1982년생 개띠 작가에는 오은 시인이 있다. 그는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카이스트 문화기술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2002년 '현대시'를 통해 등단한 오은 시인은 2009년 시집 '호텔 타셀의 돼지들', 2013년 '우리는 분위를 사랑해', 2016년 '유에서 유'를 발간했다. 정현도 작가는 1982년생이다. 20대 후반까지 금융가에서 법인 브로커로 재직할 경험을 갖고 있는 그는 첫번째 소설 '트레이더'를 통해 대형 신인으로 주목을 받았다. 이후 퍼낸 작품들이 전부 영화 계약이 되는 진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소설가 정현아도 같은 해에 출생했다. 2005년 대한대학문학상으로 등단, 2007년 문학동네작가상에 장편 '달의 바다'가 당선되며 주목을 받았다. 삶에 대한 긍정의 자세와 깊이 있는 시선이 특징이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박진현의 문화카레

3개월 전 시집 전문서점 '위트 앤 시니컬'(wit and cynical)을 취재하던 날, 생각지도 않은 미로찾기를 했다. 책방지기인 유희경(시인) 씨가 일러준 대로 서울 신촌 기차역사 건너편에서 책방을 수소문했지만 웬걸, '위트 앤 시니컬'은 눈에 띄지 않았다. 원래 길치인 탓에 어느 정도 헤맬 작오음 했지만, 주변 상인들이 친절하게 알려준 곳들은 내가 찾는 책방이 아니었다.

유희씨의 수차례 통화 끝에 가까스로 '위트 앤 시니컬'을 발견했다. 그런데 문제의 서점은 아무리 길눈이 밝은 사람이라도 찾기 어려운

한 것이다. 또한, 서울시는 지난해 3월 시민과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이들 책방길 11곳의 이야기를 담은 가이드 북 '책방산책 서울'을 출간하기도 했다.

책 속에 등장하는 망원책방길에는 지역의 문화커뮤니티로 변신하는 책방을, 흥대 앞 책방길은 국내외 독립출판물부터 책방주인과 1대1 상담을 하는 책방들이 들어서 있다. 근래 핫플레이스로 뜨고 있는 연남책방길에는 인문·여행 전문 책방들이, 종로 책방길은 해외 패션잡지와 한책의 공존을 엿볼 수 있는 서점들이 밀집돼 있다.

반갑다! '책방마실'

장소에 있었다. 그 흔한 간판은커녕 다른 습과 공간을 나눠쓰는, 일종의 '숨인숨' 서점이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을 알 리 없는 상인들은 주변의 다른 책방을 내게 안내했던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위트 앤 시니컬'이 들어서 있는 신촌 기차역사 주변은 '책방천국'이었다. 추리소설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미스터리 유니온'에서부터 중장년층의 문학다방인 '봄봄'까지 무려 6개의 서점이 성업중이었다.

솔직히, 이날 '위트 앤 시니컬'을 찾느라 발품을 팔아야 했지만 피곤한 줄 몰랐다. 저마다 독특한 컨셉을 내건 서점들이 걸어서 5분 정도 거리에 웅기 총기 모여 있다 보니 구경하는 재미가 쏠쏠했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서울의 주요 지하철역에는 '책방산책 서울'을 소개하는 전광판 광고가 내걸려 있었다. '책방산책 서울'은 서울시가 동네서점의 아끼지 않은 매력과 주변의 불거리를 알리기 위해 책방길 11곳을 엄선해 투어코스로 개발

최근 광주에서도 우리 동네의 작은 책방들을 엮은 가이드 맵이 나왔다. '씨목씨목(천천히라는 전라도 방언) 책방마실'이라는 이름의 팸플릿에는 동네책방 숨, 인생가게, 라이트라이프, 메이드 인 아날로그, 공백, 소년의 서, 책과 생활, 검은책방 흰책방, 타인의 책 지음 책방, 심가네 박씨, 연지책방, 파종모종 등 지역의 12개 서점이 수록돼 있다.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동네를 거닐다 보면 골목길 어귀에서 만날 수 있는 친근한 공간들이다. 독립출판물만을 취급하는 서점에서부터 예술과 디자인의 감각적인 책방, 하룻밤 묵으며 독서를 할 수 있는 책방, 책과 맥주가 함께하는 책방 등 그야말로 심심심색(十人十色)이다.

색깔 있는 서점은 새로운 책의 발견, 일상의 진화로 이어진다. 이들 책방이 광주의 문화명소로 뿌리 내리려면 지속적인 관심은 필수다. 시적이 반이라고 했던가. 올해는 소소한 이야기가 숨어 있는 책방으로 마실까지, 씨목씨목 말다. <제작국장·문화선임기자>

미사여구 없는 간결함이 주는 울림

'노동자 시인' 양기창 첫 시집 '불사조 사랑' 발간

"현실의 천은 어떻게 생겨 먹었는가? 비단천인가 아니면 생존권 사수가 뻑뻑이 적힌 현수막인가?"("흔들거리")

비유가 없는 직선의 시는 단단하면서도 시원시원하다. 미사여구가 없는 간결함은 역설적으로 강한 울림을 준다.

오랜만에 '쉬운 시집'이 발간됐다. 형이상학적이고 난해한 시들이 범람하는 작금에, 비틀지 않는 간결한 시는 오히려 진한 여운을 준다.

'노동자 시인' 양기창 씨가 펴낸 첫 시집 '불사조 사랑'(문학동네)은 선언적이면서도 간명하다. 노동 현장에서 체험과 탐방을 엮어 길어 올린 작품은 현장에서 느낀 사람과의 관계, 주변 이야기, 역사에 대한 단상 등 다양한 소재들로 이뤄져 있다.

시인은 시 쓰는 일을 "나의 절박함을 알아주라는 투정"이자 "더 나은 세상을 바꿔 보자 하는" 행위로 이해한다. 현란한 수사들의 시들이 자칫 현실의 문제를 왜곡하려



는 제주 4·3으로 쓰러지고 사라져간 "기가 막히고 억이 막힌 영혼들"의 숨결이 배어 있으며, '출사'라는 시를 통해서 "사월의 역사와 함께 온갖 감각기관을 때리는 파도"를 만나게 된다.

한편 나주 출신인 양기창 시인은 지난 2014년 '작가'지 신인상을 수상하며 등단했다. 그동안 광주청년문학회, 노동자문예연구회, 광주노동자문화회 등에서 활동해왔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나 덮어버릴 가능성을 경계한다.

모두 50여 편의 시들은 짙진한 삶의 현장과 곡절의 역사가 달아 있다. 삶의 고비, 역사의 고비마다 스스로를 희생하는 힘이 삶을 지탱하고 역사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이라는 믿음과 무관치 않다.

'작살나무 사랑'이라는 작품에는 제주 4·3으로 쓰러지고 사라져간 "기가 막히고 억이 막힌 영혼들"의 숨결이 배어 있으며, '출사'라는 시를 통해서 "사월의 역사와 함께 온갖 감각기관을 때리는 파도"를 만나게 된다.

한편 나주 출신인 양기창 시인은 지난 2014년 '작가'지 신인상을 수상하며 등단했다. 그동안 광주청년문학회, 노동자문예연구회, 광주노동자문화회 등에서 활동해왔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광주 21개 극단 성명

시립극단 정상화 촉구

광주 연극인들이 광주시립극단 정상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광주연극협회, 연극배우협회, 여성연극인연합회 등을 비롯한 21개 극단은 최근 광주시립극단 정상화를 촉구하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광주시립극단은 2012년 창단 이래로 지난 5년간의 행보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며 파행적으로 운영됐다"며 "예술 감독 해촉과 단무장 정지, 정시공연이 취소 등 시립극단은 끝없이 표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연극인들은 '시립극단 정상화를 위한 성명서'를 통해 ▲상임단원제 도입 등 시립극단 조직구성을 통한 타 광주시립극단체와 형평성 제고 ▲전국 공모를 통한 예술 감독 선임의 공정성 방안 마련 ▲예산집행의 투명성 확보와 견제를 위한 광주시립극단 운영위원회의 권한 강화와 활성화 ▲연극공연예술의 다양성 확보를 위한 시립극단 예술 감독의 단임제 도입 등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연극인들이 제시한 4가지 사안을 논의할 공청회 개최도 촉구했다.

<전은재기자 ej6621@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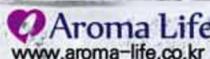
고 신영복 교수 2주기...영문판 수필선집 발간

고(故) 신영복 성공회대 교수의 2주기(15일)를 맞아 그의 수필선집이 영문판으로 발간됐다.

'저니 오브 더 리버'(Journey of the River, 강물의 여행)이란 제목으로 출간된 책은 둘째해 출판사가 2003년 펴낸 '신영복-청소녀가 읽는 우리 수필 01'의 영한대역본이다. 한 국어판에 수록된 내용 중 이미 영한 대역본으로 출간된 '청구회 추억'을

제외하고 대신 '수도꼭지의 경제학'을 신는 등 50여편의 수필을 영문으로 번역해 실고 뒷면에 한국어 원문을 따로 소개했다.

이외는 별도 고인의 출생부터 별세까지 일대기를 담은 '신영복 평전'(채륜 펴냄)도 출간됐다. '눈 속의 새 파란 댕잉' 같았던 신영복의 생애를 담담히 따라가면서 신영복의 문장들을 함께 소개한다. <연합뉴스>



www.aroma-life.co.kr





| '건강'과 '아름다움'을 모두 갖춘 |

맞춤형 기능성 속옷의 명가

아로마라이프

아로마라이프 기능성 속옷은 한국, 미국, 일본, 중국 특허를 받은 유니크한 디자인과 일본 도레이社 LYCRA (별단면옥각형)사용 및 특수 물질가공(원적외선, 음이온효과)으로 편안한 착용감과 생리적인 불편함을 해결해 주고 건강을 생각한 속옷입니다.

<p>아모리이온</p>  <p>브라+슈트+거들 4개국 특허 3단 일체형 슈트</p>	<p>아모리이온 롱바디</p>  <p>브라+슈트+거들+레깅스 4개국 특허 4단 일체형 슈트</p>	<p>아실리 바디슈트</p>  <p>블랙은사 바디슈트의 은사 레이스 품평회 1등</p>	<p>비비드 아모르</p>  <p>러닝+팬츠 2단 일체형 남성용 슈트</p>
---	--	--	--

대표전화 1588-2219